

---

# 관상동맥 중재술 중 ReoPro를 사용한 고위험 환자에서 흡연 및 CRP의 연관성

전남대학병원 진단방사선과 심혈관촬영실

이현성, 허재윤, 박수환, 이현성, 선종백, 김극중, 김광철

---

**배경 및 목적 :** Reopro는 혈소판의 당단백 수용체 GPIIb/IIIa와 결합하는 혈소판 응집을 차단하는 monoclonal antibody제제로서 PCI 시술 중 대부분 관상동맥내 혈전증이 있는 고위험 환자들에서 사용하고 있다. ReoPro를 투여했던 환자들에서 흡연 및 염증지표인 CRP(C-reactive Protein)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.

**대상 및 방법 :** 1999년 2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전남대학교병원 심장센터에서 PCI를 시행하였던 4,101예 중 ReoPro를 사용하여 PCI를 시술받았던 환자 167예를 대상으로 하여 성별, 흡연율, 나이 및 진단명, CRP 등에 차이를 분석하였다.

## 결 과 :

- 1) PCI 중 ReoPro를 사용하였던 환자 중 성별의 비율은 남자가 133예(79.6%), 여자가 34예(20.4%)이었고 흡연가는 86예로 전체 환자의 51.5%이었고 남자 흡연가는 81예(61%)이었다.
- 2) 평균 연령은 흡연가 중 남자는  $55.9 \pm 10.9$ 세, 여자  $59.5 \pm 9.6$ 세이었으며, 60세 미만의 남자 흡연가는 54예(63%)이었고 여자 흡연가는 30예(40%)로서 젊은 남자에서 흡연가가 많았다.
- 3) ReoPro를 사용한 환자는 대부분이 급성 심근경색증이었으며 흡연군은 83.7%(72/86)이었다.
- 4) 흡연가 중 CRP의 수치가 1.0 mg/dl 이상이었던 예는 남자 67%(44/66), 여자 100%(5/5)이었고 0.5 mg/dl 이상이었던 예는 남자 90.1%(60/66), 여자 100%(5/5)로서 비흡연가에 비해 CRP가 증가되어 있었다(각각  $p=0.005$ ,  $p=0.04$ ).

**결 론 :** ReoPro는 젊은 흡연가로서 CRP 수치가 증가되었던 급성 심근 경색증 환자에서 많이 투여되었으며, 이는 ReoPro의 투여가 관상동맥 내 혈전 및 염증이 심한 환자에서 시도되었음을 시사하였다.